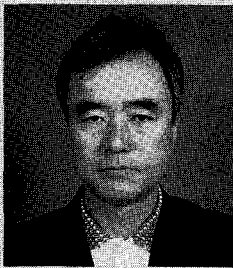


# 새천년 양계인이 가야할 길



송 인 환  
성진부화장 대표

**드**러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자기가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을 뒤돌아보는 막다른 벼랑이라는 끝에 서있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새 천년이라는 말을 대중 매체에서 많이 들

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펼쳐질 2000년도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우리 양계인들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었던가?

1999년도에도 무분별한 종계 수입의 결과로 병아리 과잉생산으로 인한 계란값의 폭락이 우리 양계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다.

새 천년에는 이런 문제점으로 우리 양계인들을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 대책으로는 다양한 식생활 문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21세기에는 보다 나은 질의 품종과 계란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 개발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살기 힘든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다. 조금만 가격이 상승하면 서로 앞다투어 수입을 하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1999년도의 아픈 기억, 즐거웠던 모든 것을 되짚어 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상! 진실!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는 창시 이후로부터 계속 찾아오고 찾고 있었다. 이제는 그것이 실현되는 시대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세계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선출하는 사랑의 구현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고 또는 뽑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일이 역사를 나누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의

은하게 또는 모든 생물과 미생물이란 일컫는 모든 것들은 경쟁을 하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의 경쟁이었다.

언젠가부터는 우리 모든 인류, 더 작게는 우리나라 축산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서로가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불신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가장 숭고한 정신, 인류의 복지, 이러한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한껏 벅차게 만든다.

우리가 기다렸던 새 천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시금 겪지 않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좀더 성숙된 인간 본연의 의식이 필요하고 자기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도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인 즉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전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해 있어 정보교환과 다른 국가와의 타협만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만이 아닌 세계를 생각하는 수준의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의 일원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생활, 즉 우리는



21세기에 적합한 축산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가 우리의 눈앞에 곧 펼쳐질 지금, 이젠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묻어두고 앞으로 시작될 한해를 철저히 준비해 맞이해야 할 것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다.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이가 될 수 있으면 한다.

2000년도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기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농·어·축업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좁은 견해에서 보는 생각을 이제 마칠까 한다. **양계**